

주의 재림과 우리의 준비

로마서 13 : 1-14

이 명 직 목사(1896. 12. 2~73. 3. 30)는 한국성결교회 사부님으로 존경받으시는 분이시다. 목사님은 성서학자로 신학자로 교육자로 설교자로 한국교회사에 큰 영향을 끼치셨다. 본 란을 통하여 그분의 그때 그 말씀을 다시 들어본다.

오 리 믿는 성도들은 때를 잘 알아야 한다. 때를 잘 알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때에는, 일을 하는 때도 있고 일을 쉬는 때도 있으며 잠자는 때도 있고, 잠을 깨는 때도 있으며, 준비하는 때도 있고, 성공하는 때도 있으며, 씨를 뿌리는 때도 있고, 거두어 드리는 때도 있다. 그 때를 잘 알아서 그 시기에 합당하게 행동을 하여야 한다. 이 세상 사람은 모두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들 이요, 취한 사람들인 고로 때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를 아는 지혜를 주신 줄로 믿으며, 때를 아는 동시에 사람에게 알리는 책임도 있다. 이사야 21 : 11,

12에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면 불으라 너희는 돌아 올지니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에서 파수꾼의 대답과 같이 우리도 때를 기다리는 파수꾼이다. 그러므로 때를 잘 알아야 우리도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을 잘 인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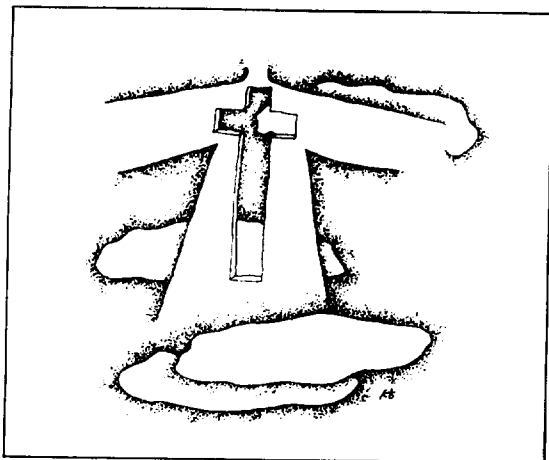
1.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우리가 이 시대를 알려면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만 알 수 있다. 이 시대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설명하겠으나, 성경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시대는, 위태(危殆)한 때이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살전 5 : 3) 하심과 같이 이 시대는 위태한 시대이다. 정치적인 면에서 위태한 것은, 군주정치(君主政治) 하에 있는 인민은 공화(共和)를 원하고, 공화정치 하에 있는 인민은 무정부주의(無政府主義)를 주창하여, 정부와 인민이 상호화합(相互和合)하여, 신뢰하지 아니함이 일대위기(一大危機)이다. 동시에 관민간(官民間)에 충돌이 일어나면 홀연히 전쟁으로 화하여 살풍경(殺風景)을 이룬다. 러시아의 적백(赤白) 충돌과 중국에 남북갈등과 구라과 계국에 잇따라 일어나는 혁명운동은 모두 위험한 것이다. 언제, 어디서 무슨 변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어 인민의 생활이 흔들리고 있는 참으로 위험한 시대이다. 또한 종교적인 면에서 심히 위태한 것은, 종교라는 이름 아래 각종 이단사설(異端邪說)이 일어나서 인심(人心)을 요란케 하고 정신을 혼미케 하여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일이 많다.

여름이 가까운 시대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눅 21 : 29-31) 라고 하셨다. ‘모든 나무’는 세계 여러 나라를 가르치고, ‘무화과나무’는 유대를 가르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계의 대세(大勢)를 보든지, 유대민족의 부흥을 보아서 이 시대는 주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운 줄 알아야 한다. 2천년이나 국토를 잃어 버리고 온 세계에 흩어졌으며, 팔레스타인은 대적 터키에 먹힌지 수백년 간, 민족이 유리 표류하며, 극심한 박해를 받아오더니, 세계대전 이후 1917년 11월 2일에 팔레스타인에 유대국 건설의 목적으로 연합국 승인하에 영국의 위임 통치가 되어 터키의 혹독한 압제 하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므로, 유대인은 1917년 11월 2일을 건국기성(建國期成) 기념일로 정했다. 근일에는 영국정부에서 유대를 위임 통치하는 일을 그만두려는 경향이 일어나는데, 만일 영국정부에서 유대위임 통치를 그만두면 자연히 유대는 독립하여 허락하신 땅 팔레스타인에서 새 유대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성경의 예언에 명백히 응함이다. 예언이 이렇게 응함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즉 주님의 재림이 가까



도 많다. 그러나 이 때는 세상을 개량(改良)하고, 사회를 개혁(改革)하는 사업보다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다. 이 때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여 일할 때요, 이 때는 교세 확장보다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 줄을 알 것이다.

자다가 깰 때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자다가 마당히 깰 때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때가 위태한 때인 줄도 모르고, 주의 재림이 가까운 때인 줄도 모르고, 덧없는 꿈속에 있는 자가 많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 맞으라" (마 25 : 6) 고 외치는 소리를 듣는가, 못 듣는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안일(安逸)한 중에 잠자다가 실패하였다. 오늘도 육체를 사랑함으로 안일한 중에 잠자는 자도 있고, 세상 사업에 몰두하여 잠자는 자도 많고, 돈을 사랑함으로 정신을 다 빼앗기고 잠자는 자도 있고, 영혼을 구원치 아니 하고 교세를 확장하며, 교회 인원 수나 더 하려고 정신 없이 잠자는 자

단장시킬 때이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계 12 : 12),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졸지도 말고, 잠자지도 말아야 할 때이다.

구원이 가까운 때이다. 우리의 구원에는 이중성(二重性)이 있다. 하나는 심령적(心靈的) 구원이고, 또 하나는 실현적(實現的) 구원이다. 다시 말하면, 심령적 구원은 현재의 것이요, 실현적 구원은 미래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하여도 완전한 구원이 못 되고, 한편뿐이다. 오히려 계속하여 받을 구원이 있으니, 즉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구속이다.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은 심령적이요, 아직 실

현적이 못되는 까닭에 병이 나고, 고통이 있고, 사망하는 것은, 현세에서는 면치 못할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영화(榮化) 즉 부활하여,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신령한 몸을 이루는 날에야 비로소 완전한 구속을 받았다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빌 3: 11, 12) 하여, 완전한 구원 즉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좇아가기를 힘썼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함은 어떤 구원인가? 즉 우리의 썩을 몸이 영생할 몸으로, 육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건한 몸으로, 혈기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우리의 신랑되신 그리스도를 공중혼인 자리에서 만나며,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함을 가르침이다. 지금은 이 구원이 가까운 때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일이 되기를 시작 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원이 가까왔느니라” 하셨다.

2. 우리의 준비

주를 고대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준비라 하겠다. 신랑을 영접하려는 신부가 준비가 없을 수 없다. 열 처녀 비유에서 열 처녀를 보라, 다섯 처녀는 왜 어리석다 하였는가. 준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혼인식에 들어가지도 못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우리의 전감(前鑑)이 아닐까? 여기에서 준비는 표면(表面)이 아니라 이면(裏面)이니 즉 심령(心靈)인데, 사람이 보는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편에서이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사람이 보는 등(燈)은 준비하였으나,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름은 준비하지 못하였다. 그런즉, 우리도 표면의 준비 뿐 아니라, 이면의 준비 즉 심령적으로 변화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준비할 것이다.

어두운 일을 벗어 버릴 것이다(롬 13: 12). 이는 중생의 은혜의 경험을 가르치는 말이다. 아직도 무덤 가운데 있어, 새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와 죄와 허물로 죽은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요일 2: 11)는, 모두 어두움에 있는 것이다. 이 어두움의 일을 벗어 버리는 것은, 곧 중생하는 일

어두운 일을 벗어 버릴 것이다(롬 13 : 12). 이는 중생의 은혜의 경험을 가르치는 말이다. 아직도 무덤 가운데 있어, 새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와 죄와 허물로 죽은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요일 2 : 11)는, 모두 어둠에 있는 것이다.

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중생 할까? 13절을 보면 ① '탐식'하는 일이다. 중생치 못한 자는 육체만을 위하여 생활하는 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과 희락과 능력을 얻지 못하고, 그 배로 하나님을 삼다가(빌 3 : 19) 죽는 것이다. ② '술취함'이다. 정욕에 속한 사람은 말하기를, 성경에 술취하지 말라 하였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으니 약간씩은 마셔도 무방하다 하나, 취하지 아니 하려면 마시지 않아야 할 것이 아닌가. ③ '음란'이다. 오늘 이 시대, 즉 어두움의 시대를 당하여,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음란인 줄로 안다.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라고 하였다. 노아 홍수시대(창 6 : 1)와 소돔이 모두 이 음란죄로 인하여 망하였

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과 눈과 마음과 언어와 교제가 모두 음란한 데서 떠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다(살전 4 : 3). ④ '방탕'이다. 방탕은 죄악으로 부패한 가운데서 나오나니, 가령 우리 신자라 하면서 영화관이나 연극장에 구경다니는 일은 방탕한 일이다. 극장은 음부와 탕자가 앉는 자리요, 결코 성도가 앉는 자리가 아니다. 장기 두는 일과 바둑 두는 일과 소설 보는 것도 방탕한 일이다.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서 연극도 하고 춤도 추고 영화도 상영하고 가극도 하고 청년 남녀학생이 신성한 강단에서 색과 음성을 팔아 먹는 음악회도 방탕한 일이다. ⑤ '쟁투'하는 일이다. 지위 때문에 다투고, 금전관계로, 이해관계로 다투는 것은 불가하다. 아브라함이 롯과 다투기를 싫어하였고, 세례 요한도 다투기를 피하였으며, 요셉과 사도 바울과 같은 성인(聖人)들은, 모두 다투기를 피하였으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한다' 하였다(딤후 2 : 24). ⑥ '시기'하는 일이다. 자기보다 나은 이를 미워하며, 자기보다 명예 있는 이를 음해하며,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교우가 자기보다 먼저 직분을 가지게 되면, 그를 시기하여 방

해하는 것은 다 중생치 못한 증거이다. 이를 어둠의 일이라 하겠다. 우리는, 이와같은 일들을 완전히 회개함으로써 버리고, 중생의 은혜를 받아 주님을 만나 빛기를 준비해야 한다.

빛의 갑옷을 입을 것이다. 롬 13 : 12에 '어두움의 일을 벗고' 하심은 소극적으로 회개하여 중생할 것을 가르침이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심은 적극적으로 성결의 은혜를 가르침이다. 즉 빛의 갑옷을 입는다 함은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도덕을 잘 준행한다 하여도 빛의 갑옷이 아니요, 오직 빛 되신 그리스도를 입는 것만, 빛의 갑옷이다. 이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어두움의 일에서 벗어난 사람이요, 또 어두운 것이 그 사람에게서 멀리 떠날 것이다. 이 빛의 갑옷을 입으면 능히 마귀와 세상과 죄악에 대항하여 싸워 이길 능력이 있으며, 또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권세까지 가지게 된다. 이 빛의 갑옷은 그리스도의 정병된 자에게 입어 마땅하다. 이 빛의 갑옷은, 에

베소서에서의 '하나님의 전신갑주(全身甲冑)'란 말과도 같은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다. 우리가 이 빛의 갑옷을 입고, 흑암의 권세를 깨치고, 이 무기를 가지고 이단(異端)과 속화(俗化)와 모든 악한 것들과 싸워 다 멸할 것이다. 이 빛의 갑옷을 입은 자는, 신랑되신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인데, "어린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 이로다" (계 19 : 7, 8) 하셨다. 이 화려하고 깨끗한 세마포는 곧 빛의 갑옷이다. 이 빛의 갑옷은, 흠이나, 티나, 주름잡힌 것이 없고, 안과 밖이 모두 정결하여, 성령께서 충만히 계신 것이니, 이를 입는 자는 곧 그리스도의 신부라, 마귀는 그 빛을 볼 때에 도망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깨어 있는가? 광명한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가? 종말